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 딜레마

광주시가 '시민의 젖줄'인 광주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환경의 복원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재해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과 생태계 복원과 수질관리를 위한 물길 조성사업이 나란히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도, 지방자치단체도 실무라인이 이원화된 구조여서 고민이 깊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국가하천 기준을 마련한 2008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한 데 이어 민선7기 들어 다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중앙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하천 승격은 익산국토관리청이 국토부에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토부 중앙

국가하천은 국토부·생태복원은 환경부 이원화 지원 근거·예산 집행 따로따로 "일원화 필요"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국가하천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비 투입을 통한 체계적인 이·치수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개선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도시를 관통하는 광주천은 길이 19.5km, 유역면적 131.5km로 국가하천 지정기준(면적 50km 이상)에 적합하지만, 하천환경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은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비 확보를 대안으로 보고 중앙 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원화된 시스템과 우선순위 문제로 딜레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예산으로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거꾸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자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 사업인데다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총 사업비의 50%, 액수로는 185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끊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거꾸로 국가하천 지정이 먼저 이뤄질 경우 물길조성 사업비를 요청할 자격과 명분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자체 조직도 하천관리와 시설 투자는 교통건설국, 생태환경과 수질관리는 환경생태국 소속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투트랙으로 사업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하천과 생태복원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연계된 사안으로 풀어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광주로선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TF팀을 중심으로 두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추진 방향과 재원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국가하천 승격과 하천생태계 복원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해결할 방안 모색에 실무 부서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日 홋카이도 규모 6.7 강진...20명 실종

6일 새벽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20여명이 실종됐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홋카이도 삿포로(札幌) 동남부 아비리(安平)정오로, 이날 새벽 3시8분께 규모 6.7의 강진이 이 지역을 강타했다. 진원 깊이는 37km,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홋카이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현재 파악 중인 가운데, NHK방송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최소 48명이 다치고 2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진이 발생한 아비리 정에서는 진도 6강(強)의 심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정도의 흔들림을 말한다.

치토세시에서도 진도 6약(弱)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이외에도 삿포로(札幌)시 및 하코다테(函館)시 등에서도 진도 5약~5강의 진동이 관측되는 등 홋카이도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홋카이도를 넘어 혼슈(本州)까지 흔들렸다. 혼슈 부단 아오모리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니가타(新潟)현에서도 진동 3~1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가옥 파손 및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1주일 가량 최대 진도 6강 지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진 발생 지역인 아사마 정 요시노(吉野)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약 20명이 실종됐다. 이 지역 주민 약 40명 가운데 20여명의 안부는 확인됐지만, 20여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계속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아사마 정을 비롯해 홋카이도 각지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은 지진으로 공항 내부 벽이 무너지거나 불이 새는 등 피해가 발생해 폐쇄됐으며, 이공항을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은 결항됐다.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발생한 삿포로 시에서는 2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진도 6강의 흔들림이 발생한 아비리 정에서는 40세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오전 8시 현재 홋카이도 전역에서 최소 4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북·중부 집중호우로 20명 사망·실종

지난 주말 이래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1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자연재해 예방정책 조정위원회가 6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아침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과 산사태로 중부 탄호아 성에서 10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했다.

또한 북부 라이치우, 손라, 엔바이, 랑순, 호이빈의 5개 성에서 홍수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수해로 가옥과 농작물, 도로, 수로와 운하 다수가 피해를 보았으며 가축 240두와 가금류 10만2400마리가 폐사했다고 조정위는 덧붙였다. 울해 들어 베트남에서는 주로 태풍 내습으로 153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부상하는 한편 7조 동(약 34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두바이발 뉴욕행 여객기 승객 19명 집단발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해 5일(현지시간)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집단 발병해 방역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미레이트항공 203편에 탑승한 약 521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약 100명이 비행 도중 건강이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은 기침과 발열, 구토 등 독감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 이 여객기는 케네디 공항에 이날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고 모든 승객들은 공항경찰과 질병 예방통제센터 관계자들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19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대변인은 "발병한 승객 19명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9명은 치료를 거부했다"면서 "그 외 승객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 출신 승객 10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허위고소·위증 사범 56명 적발

악의적인 고소로 억울한 피해를 양산하는 무고사범과 법정에서 거짓말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준성)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연)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고·위증 사범을 집중단속, 무고사범 19명·위증사범 37명 등 총 56명을 인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구공판, 22명을 약식 기소했다.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다.

무고 유형은 크게 이익추구형·책임전가형·성범죄·보복형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사범과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준수했다.

사기죄로 기소되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보복형 범죄도 밝혀졌다.

적발된 위증의 유형은 피고인 등이 위증을 교사한 사례, 인정에 얽매어 위증한 사례, 피해사실 축소 등 피해자의 위증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곡식을 지켜줘 허수아비아! 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야외농장에서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허수아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 추석 연휴 비상근무...드론으로 암체운전 단속

추석 연휴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드론(무인항공기)과 경찰 헬기를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안전정책조정 위원회를 열고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신속하게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보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전국 소방·경찰·해

경관서는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귀성·귀경객 급증에 따른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수송 등 다각도 교통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관측소(162개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드론과 경찰 헬기를 활용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울해는 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IC,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 주요 고속철도 역사에서는 24시간 폐쇄회로(CC)TV(101개역 1313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속도로·국도 상 사고 취약지점, 공사구간, 안전시설물 등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집중 정비한다. 공항에서는 이동지역 내 주요 시설물과 이용객 편의시설 등에 대해 21일까지 사전점검을 완료한다.

해양수산부도 특별수송 대책부서를 운영해 출항 이전에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해 처음으로 승선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승선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